

에스라기 아람어 본문에 나타난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

-에스라기 4장 7하반절의 번역을 중심으로-

배철현*

“Es gibt keine Mischsprache”

-Max Müller¹⁾

“Es gibt keine völlig ungemischte Sprache”

-Hugo Schuchardt²⁾

1. 들어가는 글

에스라기에 포함된 아람어 본문은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문서이다. 특히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왕 왕에게 올린 상서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 문서로 원래는 구어인 고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것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본문에는 많은 고대 페르시아어의 차용어, 차용 문구 등이 발견된다.

이 아람어 본문의 특이한 구문을 아람어나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성서가 기록될 때 그 역사적이며 언어학적인 복잡한 배경을 바로 이해하여야 비로소 해당 본문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역사언어학자들은 언어 변화는 언어 자체 내의 내적인 동기를 통해 야기된다고 믿어 왔다.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은 모든 언어 내적인 이유에 의해 언어가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역사언어학과 종교학의 창시자인 M. 뮐러(Müller)는 언어 혼합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이미 오래 전에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제창한, 언어들 간의 유전-발생학적으로 유사한 언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어 가계’에 있어서는, 언어 혼합 현상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M. 뮐러의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은 H. 슈카르트(Schuchardt)이다. 슈카르트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피진(pidgin)이나 크레올(creol)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언어들에 크레올이라고 주장한다.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 고대근동문헌학

1) M. Müller, *Lectures on the Science of Language* (New Dehli: Munshi Ram Manohar Lal, 1884), 61.

2) H. Schuchardt, *Slawo-deutsche und Slawo-italienisches* (Munich: Wilhelm Fink, 1885), 5.

언어와의 만남을 통해 외래어의 기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언어 가계 이론(Stammbaum Theory)은 언어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언어 가계 이론의 출발점인 결절점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모국어 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슈카르트의 주장은 극단적이다. 아직도 언어 가계 이론은 언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대부분의 언어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피진이나 크레올처럼 혼합 언어가 있어서 전통적인 언어가계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유전발생학적으로 연관된 언어들은 그 기본 언어 구조가 유사하다. 두 언어가 만났을 때, 선행했던 언어는 후행한 언어에 ‘차용’ 혹은 ‘기저 영향’으로 그 흔적은 남긴다.

이 논문은 그런 ‘차용’과 ‘기저 영향’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가 시작되는 구절인 에스라기 4:7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구약성서에는 4곳에서³⁾ 아람어 본문이 등장한다. 특히 에스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에스라기 4:7 하반을 자세히 살펴서, 그 기저 영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에스라기 4:7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

F. 로젠탈(Rosenthal)은 그의 성서 아람어 문법책에서 이미 페르시아, 히브리어, 아카드어가 아람어에 끼친 기저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서술은 주로 차용 단어에 집중하였다.⁴⁾ 최근 고대 페르시아 비문과 언어를 통해 아람어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최근 J. 마쿠히나(Makujin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성서 아람어에 나타난 차용어구들을 연구하였다.⁵⁾

에스라기에서 아람어가 시작되는 구절은 다른 구절들과는 달리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람어 본문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에스라기에서 아람어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이다:

3) (1) 에스라기 4:8-6:18; 7:12-26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련된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기록); (2) 다니엘서 2:4-7:28 (유대인과 묵시문학적 내용이 담긴 5가지 이야기들); (3) 예레미야서 10:11 (히브리어 문장들 안에, 우상숭배를 배척하는 아람어로 기록한 한 문장); (4) 창세기 31:47 (히브리어 지명을 라반의 언어라고 명명된 아람어로 번역한 두 단어).

4) F. Rosenthal,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th and rev. ed. (Wiesbaden: Harrassowitz, 1995), 61-63.

5) John Makujina, “Dismemberment in Dan 2:5 and 3:29 as an Old Persian Idiom, “To be Made into Parts””(*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9 [1999], 309-312); “A Critical Note on Two Old Persian Calques in Official Aramaic”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21 [2001], 178-185).

TAR Ezr 4:7 וּבִימֵי אֲרִתְחֶשְׁתָּא קָתַב בְּשָׁלֹם מִתְרַדְתָּ טְבָאֵל וְשָׂאֵר כְּנֹחֵי
 עַל-אֲרִתְחֶשְׁתָּא מְלֵךְ פָּרְס וּכְתַב כְּתוּב אֲרַמִּית וּמְתָרְגָּם אֲרַמִּית:

이 구절에 대한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LXX, 라틴어 번역본인 Vulgata의 번역, 그리고 『새번역』, NRSV, 그리고 JPS 번역을 차례로 살펴보자:6)

2.1. LXX7)

LXX Ezr 4:7 και εν ημεραις Αρθασασθα εγραψεν εν ειρηνη Μιθραδ ατη Ταβελ συν και τοις λοιποις συνδουλοις αυτου προς Αρθασασθα βασιλευ Αερσων εγραψεν ο φορολογος γραφην *συριστι και ηρμηνευμ ενην

아닥사스다 시절에 다브엘이 미르드닷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에게 안부 편지를 썼다(직역 “평안이 편지했다): 조공을 거두는 자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시리아 말(συριστι)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번역되었다.

칠십인역에서는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과는 달리, 다브엘이 미르드닷과 그의 동료들에게 안부 편지를 쓴 것으로 기록한다. 또한 아닥사스다에게 말하는 자는 ‘조공을 거두는자’(ο φορολογος)가 독자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기록한다. 칠십인역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참고했을지 모른다.

4:7하에는 다음과 같이 편지가 기록되었다는 내용을 전한다:

LXX Ezr 4:7b εγραψεν ο φορολογος γραφην γραφην *συριστι και ηρμηνευμενην

-
- 6) 여기에 언급된 번역본들은 필자의 자의적인 선택이다. 물론 이외에도 페쉬타,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람어 번역본 등 구약성서 본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번역본들이 존재하나, 논문의 논지를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번역본들만 다룰 것이다.
- 7)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과는 사뭇 다른 번역을 전해준다. 칠십인역이 쓰인 기원전 2세기부터 마소라 본문이 성립된 기원후 6세기까지 많은 첨가, 누락, 오류 등 수많은 본문비평적으로 중요한 여러 변화가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구절에서는 칠십인역이 좀더 나은 본문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칠십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 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수용되었다. 1세기 팔레스티나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도 타르굼 아람어 번역본과 함께, 칠십인역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장을 직역하자면 “(그는) 편지를 시리아어로 썼고 (그 편지는) 번역되었다(?)”이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אֲרָמִית 대신 συριοτι를 사용하여, 기원전 2세기에 걸맞게 ‘현재화’를 시도하였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מִתְרַגְּמֵם אֲרָמִית을 ηρμηνευμενην로 번역한 사실은 흥미롭다. 이 단어는 ερμηνευω의⁸⁾ 완료 분사형으로 매우 적절하게 מִתְרַגְּמֵם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마소라 본문의 אֲרָמִית가 사라진 점이다. 아마도 칠십역 기자는 אֲרָמִית를 마소라 본문의 불필요한 첨가라고 생각하여 생략하였거나 원래 칠십인역 기자가 참고한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은 그 편지가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시도를 불가타를 통해 알아보자.

2.2. 불가타

기원후 5세기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⁹⁾ 후대에 등장하는 마소라 본문과 유사하게 번역하였다. 칠십인역이 참고했던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후대에 마소라 본문을 작성한 학자들이 참고했던 히브리어 본문 혹은 그와 유사한 본문을 참고하여 번역했던 것 같다. 다음은 에스라기 4:7 번역이다:

VUL Ezr 4:7 et in diebus Artaxersis scripsit Beselam Mitridatis et Tabel et reliqui qui erant in consilio eorum ad Artaxersen regem Persarum epistula autem accusationis scripta erat syriace et legebatur sermone syro

아닥사스다 시절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조정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참조 편지는 시리아어로 되어 있고, 시리아 말로 읽혔다

마소라 본문과 다른 점은 “나머지 그의 동료들”이라고 번역한 וְשָׂאֵר כְּנֻחָיו 대신 “reliqui qui erant in consilio eorum” “그들의 조정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로 대치한 점이다. 그들이 보낸 편지는 “참소 편지”(epistula autem accusationis)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편지는 “그 참조 편지는 시리아어로 되어 있고, 시리

8) ερμηνευω의 기본적인 의미는 (1) ‘(외국어틀) 번역하다/통역하다’(제노폰); (2) ‘해석하다’(투스 디세스); (3) ‘설명하다’(소포클레스; 플라톤)이다(H. G. Liddel and R. Scott, *Greek-English Lexicon With a Revised Supple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96], 690).

9) 불가타는 기원후 382년 교황 다마스스 I세의 명령으로 제롬에 의해 번역된 라틴어 성서이다. 기원후 5세기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는 당시 키케로의 세련된 라틴어와는 달리 일반적인 문학작품에 쓰인 라틴어를 썼다. 제롬은 구약성서 39권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하였고 토비아스와 유딧서는 아람어에서, 그 외는 그리스어에서 번역하였다.

아 말로 읽혔다”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칠십인역의 번역과는 다소 다르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칠십인역은 이 편지가 아람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 혹은 ‘통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타는 이 편지가 ‘시리아 말로 읽혔다’라고 번역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불가타의 이 마지막 부분 번역은 후대에 등장하는 마소라 본문의 기록이며, 또한 『성경전서 새번역』의 번역이다.

2.3. 『성경전서 새번역』

이 문장에 대한 대표적인 번역본들의 번역을 보자. 먼저 『성경전서 새번역』(2001년)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새번역』라 4:7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되었다.

*또는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다.’¹⁰⁾

『새번역』은 머리말에서 번역대본으로 독일성서공회가 출판한 히브리어 구약전서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슈튜트가르텐시아』(1967/77)에 실려 있는 마소라 본문을 참고하였다고 한다.¹¹⁾ 이 구절은 마지막 부분인 אֲרָמִית וּמְתָרָגִם אֲרָמִית을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되었다”라고 번역하고, “번역”이란 낱말에 마소라 본문의 אֲרָמִית가 첨가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각주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의 문장이 이 서기관들이 참조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앞에서 아람어로 번역되었다는 해석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분명한 오역인 것 같다. 페르시아 제국의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공식 편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정당하지만,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앞에서 그 편지를 다시 ‘아람어’로 번역하였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이 해석은 위에서 언급한 불가타의 해석이기도 한다. 마소라 본문의 마지막 두 단어인 אֲרָמִית וּמְתָרָגִם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NRSV가 제시해주었다.

10) 『성경전서 새번역』(대한성서공회: 2001), 574.

11) Ibid., 머리말.

2.4. NRSV¹²⁾

NRS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NRSV Ezr 4:7 *And in the days of Artaxerxes, Bishlam and Mithredath and Tabeel and the rest of his associates wrote to King Artaxerxes of Persia; the letter was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

*Heb adds *in Aramaic*, indicating that 4:8-6:18 is in Aramaic. Another interpretation is *The letter was written in the Aramaic script and set forth in the Aramaic language*¹³⁾

NRSV는 각주에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소라 본문의 מִתְּרַגְּמָם을 “translated”라고 번역하였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인 אֲרָמִית을 각주로 처리하면서 에스라기 4:8-6:18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였다는 일종의 표시로 해석하였다; 둘째, 각주에서 “*The letter was written in the Aramaic script and set forth in the Aramaic language*” 즉, “그 편지는 아람어 글자로 씌었고, 아람어로 설명되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해석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해석이지만, 두 번째 해석은 아닥사스다 왕이 설령 아람어를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국어인 고대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설명했다는 해석은 오류인 것 같다.

2.5. JPS

JPS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JPS Ezr 4:7 *And in the time of Artaxerxes, Bishlam and Mithredath and Tabeel and the rest of his associates wrote to King Artaxerxes of Persia, a letter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1) *Aramaic:*(2)

(1) Cf. below v. 18 and note d.

(2) A note indicating that what follows is in the Aramaic language¹⁴⁾

12)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with the Apocryph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3) *NRSV*, 585.

14)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2nd. ed.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1843.

JPS는 번역되었다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4장 18절의 번역과 각주와 비교하라 이른다. 다음은 에스라기 4:18의 아람어 원문과 그 번역이다:

וְשֵׁלְחָתוֹן הָיָה שְׁלֵחָתוֹן עֲלֵינָא מִפַּרְשֵׁי קָרִי קְרָמִי: TAR Ezr 4:18

*Now the letter that you wrote to me has been read to me in translation**

**I.e. from Aramaic to Persian.*

JPS는 מִפַּרְשֵׁי는 에스라기 4:18처럼, 페르시아 제국 궁전에서 아람어로 쓰인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마지막 단어인 אֲרָמִיָּה는 이미 NRSV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아람어로 기록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인 공식 아람어로 쓰인 편지라는 것을 표시한다.

3.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언어 상황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로¹⁵⁾ 채택된 아람어는 이미 기원전 10세기부터 고대 근동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⁶⁾ 시리아의 카불(Khabur)에 위치한 기원전 10세기 비문인 텔 파카리아(Tell Fakhariya)의 앗시리아어-아람어 비문은 이미 신-앗시리아 시대에 아람어가 사용됨을 말해준다. 신-앗시리아 시대에 아람어 편지(egirtu armītu)가 언급되고 티글랏-필레셋 제3세(Tiglath-Pileser III)시대의 부조물예 펜과 파피루스(혹은 양피)를 든 서기관과 전통적인 갈대필(stylus)과 토판(혹은 밀랍상자)를 든 서기관이 동시에 등장한다.

공식 아람어의¹⁷⁾ 앗시리아 기원을 주장한 학자는 긴스버그이다. 그는 신-앗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에 사용된 아람어가 같은 방언이고¹⁸⁾ 후대인 페르시아 시대에 등장하는 ‘공식 아람어’는 이 방언에서 파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공용

15) 성서 시대의 아람어는 아비 후르비츠(A. Hurvitz)의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the Problem of ‘Aramaism’s’ [in the Linguistic Research of the Hebrew Bible, Studies in Hebrew and Jewish Languages Presented to Shelomo Morag, ed. Moshe Bar-Asher, (Jerusalem, 1996), 79-94]를 참고하라.

16) S. Kaufmann, *The Akkadian Influences on Arama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4), 10.

17)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를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제국 아람어(Imperial Aramaic, 마르크바르트가 처음 사용한 독일어 Reichsaramäisch의 번역), 공식 아람어(Official Aramaic), 표준 아람어(Standard Aramaic), 이집트 아람어(Egyptian Aramaic). 이 필자는 이 논문에서 에스라기가 쓰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를 ‘공식 아람어’라고 부를 것이다.

18) H. L. Ginsberg, “Aramaic Dialect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Studies* 50 (1933):3.

어로서의 아람어의 발생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somewhere east of the Euphrates; very likely in Assur itself and its immediate vicinity, that is to say, in a district east of the Tigris”¹⁹⁾

이런 국제 공용어로서의 아람어는 성서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열왕기 하 18:26-27은 고대 유대장관들이 유대말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산헤립이 이끄는 앗시리아 장관들과 대화를 나눈다:²⁰⁾

힐키야의 아들 엘리아킴과 셉나와 요아가 시종장관에게 청하였다.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는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성 위에서 듣고 있는데, 유대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시오.”

이 이외에도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로 쓰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 우르(Ur)에 있는 관원이 왕에게 탄원 편지를 아람어로 썼다; 2) ‘아람어’ 편지가 두로로부터 앗시리아 왕에게 보내졌다;²¹⁾ 3) 바빌론에서 아수르로 보낸 커다란 이름이 적힌 석편이 아람어로 쓰였다. 신-바빌론 시대에 아람화는 가속화되었다. 신 바빌론 시대의 아람어는 구어로 사용되었고 이 당시 아카드 문서에서 아람어의 기층 영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공식 아람어의 바빌로니아 기원을 주장하는 학자는 그린필드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람어는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아람어와 동일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fter Assyria was conquered by the Medes and the Babylonians, most of Assyrian territory in the West came under Babylonian control. The Aramaic used in Babylonia, and Eastern dialect, gradually replaced the dialect used by the Aramaeans of Assyria (“Mesopotamian” Aramaic). When the Persians came to power in the near East, it was natural that this Eastern Aramaic should achieve a dominant role as the language used for official correspondence and proclamations.²²⁾

19) Ibid., 8.

20)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nchor Bible Commentar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8), 232.

21) H. W. F. Saggs, “The Nimrud Letters,” *Iraq* 17 (1955), 9-16.

22) J. Greenfield, “Aramaic and Its Dialects,” *Jewish Languages: Theme and Variations*, H. H. Paper, ed. (Cambridge, Mass.: Associations for Jewish Studies, 1978), 96.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 제국을 함락시키고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자신들의 궁중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하였다. 기원전 521년 나일 강에서 인더스 강까지 점령하는 최초의 제국 건설자가 된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이란어가 아닌 아람어를 국제 공용어(*lingua franca*)로 삼았다. 이 선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아람어는 이미 레반트, 이집트, 그리고 동부 이란 지역에 통용되고 있었고 아람어 알파벳은 엘람어나 아카드어의 썩기 문자보다 배우기 쉬웠고 쓰기 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우스 왕 재위 초기에는 아직 고대 페르시아 문자가 창제되지 않았다.

다리우스 대왕은 비문을 엘람어, 아카드어, 그리고 막 창제한 고대 페르시아어로 기록하였다. 엘람어는 당시 수사를 중심으로 발전된 중앙 집권의 언어로 쓰였다. 엘람어가 수사를 중심으로 행정문서를 보관해 왔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아케메니드의 언어 상황은 처음부터 다언어주의를 주장했다. 고대근동의 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다언어 비문이 보편화되었다.

다리우스 왕이 그의 정복 과정을 비시툼 산에 새기고자 할 때, 그는 다중언어 서기관들, 즉 그의 고대 페르시아어를 당시의 정부언어였던 엘람어로, 그리고 당시 국제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리우스 왕이 비시툼 비문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고대 페르시아 비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리우스 대왕의 대표적인 비문인 비시툼 비문(DB)도 처음부터 세 가지 썩기 문자로 새겨지지는 않았다. 다리우스 왕이 그의 행적을 구어 고대 페르시아어로 말했다 할 때, 다중언어 서기관들, 맨 처음에는 이중언어 엘람 서기관들과 아카드어 서기관들이 그의 페르시아 구어를 번역했을 것이다.

다리우스는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새긴 비시툼 비문의 엘람어와 아카드어 비문에 페르시아 비문을 첨가하기로 결정하고, 페르시아어 문자를 만든다. 그 내용이 그의 비시툼 비문에 고대 페르시아어와 엘람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 페르시아어:

DB 4:88-92

(88) *Ōātiy Dārayavauš xšāyaθiya vašnā Au-*

(89) *ramazdāha i[ya]m dipimaiy ty[ām] adam akunavam patišam ariyā āha utā pavast-*

(90) *āyā utā carmā graθitā āha*

(88) 다리우스 왕이 말한다: 아후라마즈다의

- (89) 위대함으로, 이것이 내가 만든 비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아리안어로 되어 있고
 (90) 토판문서와 양피지에 쓰였다.²³⁾

엘람어

DB 4.1-5

- (1) m.Dariyamauš m.sunki na.n.zi zau-
 (2) in d.Uramazda.na m.u h.tuppi.me
 (3) da'e.ikki hutta hariya.ma
 (4) appa šašša inni šari kutta h.hala-
 (5) tuku kutta KUŠ.meš.ukku

- (1) 다리우스 왕이 말한다:
 (2) 아후라마즈다의 도움으로 나는
 (3) 다른 문헌을 아리아어로 만들었다.
 (4) 이것은 이전에 토판이나
 (5) 양피지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다.²⁴⁾

비시툼 비문의 내용을 다리우스 대왕이 그가 정복한 속국들에 보낼 때는 공식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비시툼 산에 새겨진 비문의 아람어 번역본이 이집트의 엘라판타인과 사카라에서 발견되었다.²⁵⁾

다리우스 자신이 고대 페르시아어 DB IV. 89b-92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죽 위에… 아리아어로… 쓴”이란 표현은 아람어(Aramaic language)로 쓴 번역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람어’ 번역본은 ‘아리아어’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다리우스 왕의 구어인 고대 페르시아어가 아람어 문자로 자역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아람어 문자 자역이 나쿠쉐 루스탐(Naqsh-e Rostam)에 있는 다리우스 왕의 무덤에 적혀 있다. 이 비문은 아닥사스다 제2세 때 적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비문은 이미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증거

23) C Chulhyun Bae, *Comparative Studies on King Darius's Bisitun Inscription*,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1), 219-220.
 24) Ibid., 220.
 25) E. Sachau, *Aramäische Papyrus und Ostraka aus einer jüdischen Militäarkolonie zu Elephantine: Altorientische Sprachdenkmäler des 5. Jahrhunderts vor Christus*. 2 vol. (Leipzig: J. C. Hinrichs, 1911): 187-205; A.E. Cowley, *Aramaic Papyri of the Fifth Century B.C.: Edited with Translations and Notes* (Oxford: Clarendon, 1923), 248-271; B. Porten and A. Yardeni, *Textbook of Aramaic Document from Ancient Egypt Newly Copies, Edited and Translated into Hebrew and English: 3. Literature, Accounts, Lists*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93).

를 제시한다. 후에 중기 페르시아 시대의 언어 파흘라비어(Pahlavi)는 아람어 문자를 사용하고 읽기는 페르시아어로만 읽었다.

이와 유사한 번역이 페스폴리스 재무 문서에서도 발견된다.²⁶⁾ 토판 문서들은 가죽이나 파피루스 조각이 끈으로 묶여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페스폴리스에서 주문이 고대 페르시아로 주어지면, 엘람어 이중언어 서기관들은 아람어 문자로 고대 페르시아를 음역하여 썼다. 그 후에 이 음역을 기초로 엘람어 문서가 토판에 새겨진다.

이러한 아람어 문자로 쓰인 고대 페르시아 음역이 비스툰 산의 비문들의 원본이 되었다. 비스툰 비문의 아카드어, 엘람어,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은 각기 이 원본을 기초로 후에 새겨진 것 같다. 각각의 서기관들은 각자에 맞는 문헌 전통에 따라 번역을 하였다.

4. 페르시아 비문을 통해 본 에스라기 4:7하 번역

에스라기 4:7하에 대한 마소라 본문은 다음과 같다:

וְכָתַב כְּתוּב אַרְמִיָּית וּמְתָרְגָּם אַרְמִיָּית:

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מְתָרְגָּם**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 단어는 “번역되었다”로 해석되는데,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이 단어의 어근 *t-r-g*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의 어근인 *t-r-g*은 일찍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현재의 이라크)에서 기원전 2600년부터 사용되던 셈족어의 한 분류언어인 아카드어로 ‘통역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타르굼만누’ 혹은 ‘투르굼만누’ (*targumannu; turgummannu*)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⁷⁾ 이 단어를 사용하던 지역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앗시리아였다. 그 곳에서는 이 단어를 고대 앗시리아 시대(기원전 2000-1500년)부터 신 앗시리아 시대(1000-50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빌로니아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2000-1500년)에만 사용되었다.

특히 앗시리아의 수도 앗수르(Assur)와 히타이트인(성서에서 헷족)들이 이주

26) R. N. Fyfe, “The ‘Aramaic’ Inscription on the Tomb of Darius,” *IrAnt* 17 (1982), 85-90.

27) W.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Vol.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1329.

하기 전 아나톨리아 지역의 도시들과 무역한 내용을 담은 고대 앗시리아 문서에 “전문 통역관”들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²⁸⁾ 아카드어 문헌에서 ‘타르쿰만누’는 그 앞에 항상 직업을 나타내는 결정사 LU 라는 접두어가 붙어 ‘(직업적인) 통역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²⁹⁾ 대규모 국제 무역을 했던 앗시리아인들이 당시 히타이트어, 혹은 그 이전의 언어인 핫티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관을 대동하여 무역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통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마소라 본문에서 ‘번역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단어 ‘메투르갸ם’은 ‘티르갸ם’(tīrgēm) 동사의 수동 분사형으로서, 궁중 문서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전해질 때, 궁궐 안에서 다시 페르시아어로 통역·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 궁전 안의 전문 통역관이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를 읽고, 왕 앞에서 다시 페르시아어로 통역했다.

람비 시대 히브리어에서도, ‘티르갸ם’(tīrgēm)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성서를 다른 언어로, 대개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을 뜻했다. t-r-g이란 어근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통역 혹은 번역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 곧 히브리어 성서를 당시 히브리어를 모르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람어로 통역·번역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통역·번역하던 사람들을 ‘메투르갸ם’, ‘투르갸ם’, 또는 ‘함메투르갸ם’이라 불렀다. 한편 미쉬나에서는³⁰⁾ 다니엘서와 에즈라서의 아람어로 쓰인 부분을³¹⁾ ‘타르쿰’이라 불렀다.

‘티르갸ם’(tīrgēm) 동사는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랍비 히브리어에서 성서 구절이나 미쉬나를 같은 언어인 히브리어로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타르쿰’에는 그리스어 ‘헤르메네우오’나 라틴어 *interpretor*, 영

28) *Keilschrifturkunden aus Boghaz-Köi* III.26.6: R. Labat, *L'Akkadien de Boghaz-Köi: Étude sur la langue des lettres, traités et vocabulaires Akkadiens trouvés à Boghaz-Köi* (Bordeaux: Librairie Delmas, 1932), 219.

29) 이 용어는 히타이트와의 무역이 활발했던 아시리아에서 처음 생겨나 널리 쓰인 뒤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 어원이 아카드어가 속한 셈어가 아닌 히타이트어와 같은 인도-유럽어(Indo-European)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유럽어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언어인 히타이트어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기원전 17-13세기에 활동했던 히타이트족의 언어이다. ‘타르쿰만누’는 히타이트어인 ‘타르쿰마이’(tarkummai-), 곧 ‘번역하다, 해석하다’에서 빌려온 차용어이다. 그래서 이 어근은 무역·외교·행정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통역 또는 번역’을 의미한다.

30) 미쉬나(Mishna)는 기원후 3세기 초엽에 랍비 유대(Rabbi Judah)가 모아 편집한 유대인들의 법령집이다. 미쉬나는 총 6장과 63개 주제로 되어 있다. 후에 탈무드의 기초 자료집이 된다.

31)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다. 그래서 이 당시의 아람어를 ‘제국 아람어’(Imperial Aramaic) 혹은 ‘공용 아람어’(Official Aramaic)이라 부른다. 구약성서에서 아람어로 쓰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 에스라기 4:8-6:18; 7:12-26; 다니엘서 2:4b-7:28. 이 중에서 에스라서 부분의 아람어가 제국 아람어이다.

어 *interpret*처럼 ‘(다른 언어를) 통역·번역하다’라는 뜻과 ‘(같은 언어로) 설명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단어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문장은 JPS가 지적한 대로, 통역·번역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는 ‘파라쉬’(p-r-š)가 있다. 에스라기 4:18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וְשִׁחַתְוּנָא דִּי שְׁלַחְחוּן עֲלֵינָא מִפְּרֵשׁ קָרִי קְרָמִי: TAR Ezr 4:18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되어(*mprš*) 낭독되었다.

“번역되어”의 성서 아람어 어근 ‘파라쉬’(p-r-š)는 어원이 불분명하다. HALOT는 이 어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a. pt. passive מִפְּרֵשׁ: to separate; pt. passive Ez 4.18 traditionally separated, i.e. to be read clearly, word by word... Heb. מִפְּרֵשׁ Neh 8:8. translated section by section, corresponding to Heb.³²⁾

HALOT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와 억지 연결시키는 듯하다. 느헤미야기 8:8에 이 단어가 등장한 문장을 살펴보자:

וַיִּקְרְאוּ בְסֵפֶר בְּתוֹרַת הָאֱלֹהִים מִפְּרֵשׁ וְשׁוּם שְׂכָל וְיָבִינוּ בְּמִקְרָא: TAR Neh 8:8

『새번역』 느 8:8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은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NRSV Neh 8:8 So they read from the book from the law of God, with interpretation. They gave the sense, so that the people understood the reading

JPS Neh 8:8 They read from the scroll of the Teaching of God, translating it and giving the sense; so they understood the reading

p-r-š가 과연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번역하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HALOT의 마지막 부분에 폴로스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가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단어라 언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인도-이란어에서 발견된다. 고대 이란어인 아베스타어 ‘퍼러사’(pərəsa-)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퍼츠차티’(prcchati)에는 모두 ‘묻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단어

32)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ume 5: The new Koehler-Baumgartner in English* (Leiden: Brill, 2000), 1959-1960.

는 오히려 고대 페르시아에서 차용한 단어로 추정된다.

특히 이 단어가 *p-r-s*(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로는 다리우스 대왕(기원전 522-486년)의 비시툼 비문에 새겨진 고대 페르시아어 ‘파티파르사’(*pati.parsa*- ‘읽다, 해석하다’)에서도 드러난다. 다음은 비시툼 비문에 나타난 *pati.parsa*-의 용례들이다:

DB 4.40-43

- (40) *Θātiy Dārayavauš xsāyaΘiya ima taya adam akunavam*
 (41) *vašnā Auramazdāha hamahayāyā Θarda akunavam tuvam kā haya*
 (42) *aparam imām dipim patiparsāhaya taya manā kartam varnavatām*
 (43) *Θuvām mātaya draugam maniyāhay*

- (40) 다리우스 왕이 말한다: 이것이 내가 이룬 일이다.
 (41) 아후라마즈다의 위대함으로 1년 안에 이 일을 해냈다.
 (42) 후에 이 비문을 읽을 너는, 내가 행한 일로 인해 설득당하여
 (43)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³³⁾

다음은 다리우스 왕이 고대 페르시아어 글자를 처음으로 만드는 내용과 자기가 등극한 과정이 적힌 페르시아 공식 문서를 속국들에 보내는 내용이다:

DB 4:88-92

- (88) *Θātiy Dārayavauš xsāyaΘiya vašnā Au-*
 (89) *ramazdāha i[ya]m dipīmai ty[ām] adam akunavam patišam ariyā āha*
utā pavast-
 (90) *āyā utā carmā graΘitā āha patišamaiy patikaram akunavan patišam*
uvadā-
 (91) *m akunavam utā niyapithiya utā patiyafrafiya paišiyā mām pasāva*
i[mā]m d-
 (92) *ipim adam frāstāyam vispadā atar dahayāva kāra hamātaxšatā*

- (88) 다리우스 왕이 말한다: 아후라마즈다의
 (89) 위대함으로, 이것이 내가 만든 비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아리안어로 되어 있고

33) *Comparative Studies on King Darius's Bisitun Inscrip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1. 219.

(90) 토관문서와 양피지에 쓰였다. 그리고 내가 내 가게를 만들었다.

(91) 그것이 새겨졌고 또한 **그것이 내 앞에서 읽혀졌다**. 그 후에 내가 이 비문을

(92) 모든 이방 나라에 보내어, 사람들이 (그 내용을 행하도록) 함께 노력 하였다.³⁴⁾

페르시아 제국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내용을 낭독할 때, 다리우스 왕이 비시툼 비문 전체를 듣고 점검한다. 느헤미야기 8:8처럼, 아람어로 기록된 공식 문서는 다리우스 왕 앞에서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낭독되었을 것이다. 다리우스 왕은 정복한 나라들에 같은 내용을 공식 아람어로 쓴 외교문서로 보냈다.

5. 나가는 글

성서 구절을 번역할 때 해당 원전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언어학적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에스라기 4:7하의 번역은 단순히 아람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적 상황, 즉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로 아람어를 선택하였고, 페르시아 제국 안의 이중언어 서기관들이 이 아람어를 다시 다리우스 왕에겐 페르시아어로 통역한 것이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끼친 기저 영향은 음운론, 형태론, 혹은 통사론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에스라기 4:7의 경우처럼 기저 영향은 그 문헌이 기록된 역사적-언어학적 배경까지 포함해야 한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학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혹은 상상하여 성서 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에스라기 4:7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혔고 (페르시아어로) 통역되었다. 아람어 본문:

<주요어>(Keyword)

에스라기 4:7, 아람어, 고대 페르시아어, 기저 영향, 번역/통역

Ezra 4:7, Aramaic, Old Persian, substratum influence, translation/interpretation

34) Ibid., 220.

<참고문헌>

『성경전서 새번역』(대한성서공회: 2001).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2nd. ed.,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with the Apocryph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Bae, Chulhyun, *Comparative Studies on King Darius's Bisitun Inscrip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1.

Cogan M. and Tadmor H., *II Kings*. in *Anchor Bible Commentar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8.

Cowley, A.E., *Aramaic Papyri of the Fifth Century B.C.: Edited with Translations and Notes*, Oxford: Clarendon, 1923.

Fyre, R. N., "The 'Aramaic' Inscription on the Tomb of Darius," *Iran* 17, 1982, 85-90.

Ginsberg, H. L., "Aramaic Dialect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Studies* 50, 1933.

Greenfield, J., "Aramaic and Its Dialects," Paper, H. H., *Jewish Languages: Theme and Variations*, eds., Cambridge, Mass.: Associations for Jewish Studies, 1978.

Kaufmann, S., *The Akkadian Influences onf Arama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4.

Labat, R., *L'Akkadien de Boghaz-Köi: Étude sur la langue des lettres, traités et vocabulaires Akkadiens trouvés à Boghaz-Köi*, Bordeaux: Librairie Delmas, 1932.

Liddel H. G., and Scott, R., *Greek-English Lexicon With a Revised Supple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96.

Makujina, John, "A Critical Note on Two Old Persian Calques in Official Aramaic"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21 (2001), 178-185.

Makujina, John, "Dismemberment in Dan 2:5 and 3:29 as an Old Persian Idiom, 'To be Made into Part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9 (1999), 309-312.

Müller, M., *Lectures on the Science of Language*, New Dehli: Munshi Ram Manohar Lal, 1884.

- Porten B., and Yardeni, A., *Textbook of Aramaic Document from Ancient Egypt Newly Copies, Edited and Translated into Hebrew and English: 3. Literature, Accounts, Lists*,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93.
- Rosenthal, F., *A Grammar of Biblical Aramaic*, 6th and rev. ed., Wiesbaden: Harrassowitz, 1995, 61-63.
- Sachau, E., *Aramäische Papyrus und Ostraka aus einer jüdischen Militäarkolonie zu Elephantine: Altorientische Sprachdenkmäler des 5. Jahrhunderts vor Christus*. 2 vol., Leipzig: J. C. Hinrichs, 1911, 187-205.
- Saggs, H. W. F., "The Nimrud Letters," *Iraq* 17, 1955, 9-16.
- Schuchardt, H., *Slawo-deutsche und Slawo-italienisches*, Munich: Wilhelm Fink, 1885.
- von Soden, W., *Akkadisches Handwörterbuch*, vol. III,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81.

<Abstract>

Old Persian Substratum Influence in the Book of Ezra: In the Case of Ezra 4:7b

Prof. Chul-Hyun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nslating the Hebrew Bible demands, most of all, expertise in original languages, Hebrew and Aramaic. Furthermore from beginning to end, the Hebrew Bible had been under constant cross-linguistical influences of Near Eastern languages like Akkadian, Egyptian, and Old Persian. The Aramaic portion in the Book of Ezra demands familiarity in Old Persian and its linguistic environment.

Ezra 4:7b, the second half of the beginning verse in Aramaic has been a problem for Bible translators.

This verse usually reads “...the letter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 for the Aramaic text, :וּכְתָב כְּתוּב אַרְמִיית וּמְתָרְגָּם אַרְמִיית. Some of the basic questions in the verses are: 1) Why was the letter written in Aramaic?; 2) What does “translated” mean in this verse?; 3) Why does the Aramaic text have “Aramaic” in the end? Did Massorets make a mistake in verse-dividing?

Aramaic became the lingua franca for Achemenid Persians for official record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he Aramaic portion in Ezra is similar in language and style as a lingua franca for Persian chancery. Official letters in Aramaic must have been translated into Old Persian especially when they were presented to Persian kings, who did not understand Aramaic. Thus the verse in question should be translated to “... the letter (is)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 (into Old Persian).” The last word, “Aramaic” is a caption which indicates the beginning of the text in Aramaic. The Massorets made a mistake in verse-dividing. “Aramaic” must be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verse, 4:7.